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 색으로 하나 되기

인천해원중 과학동아리 뉴턴(New Turn), 대통령상 수상

인천해원중학교(교장 김경은)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제24회 한국과학과학탐구올림픽에서 인천해원중학교 과학 동아리 뉴턴(New Turn)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인천해원중학교 과학동아리 뉴턴(New Turn)은 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와 함께 출전해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5개 분야 최우수 입상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1팀을 선정해 수여하는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는 인천광역시에서 전국과학과학탐구올림픽에 참가한 이래 최초로 거둔 성과이다. 총 19팀의 학생들이 구성된 인천해원중학교 과학동아리 뉴턴(New Turn)은 올해에는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 색으로 하나 되기'라는 주제로 전연연표에 관한 탐구를 수행했다.

"인류는 왜 색을 사용했을까?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어떻게 색을 만들어 이용했을까?" 등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학생들

은 각자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탐구를 수행했다.

전연연표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쪽을 직접 학교 뒷밭 '햇살이랑'에서 재배해 전통 방식의 니랍 추출을 시도함으로써 전통과학의 우수성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으로 동아리 대표 학생 2명과 지도교사는 교육감과의 간담회에 참석했고, 지도교사는 "다른 많은 과학 행사들이 과학을 잘하거나 좋아하는 학생들이 경쟁하는 구도도 펼쳐지지만 이번 동아리 활동 발표대회는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협동해야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스스로 활동을 주도하는 자발적 동아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느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인천해원중학교는 신개념 문화 분야, 문화에 어울리는 분야, 학습활동 분야로 나누어 90여 개의 동아리를 조직해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및 흥미와 연계한 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에 활력을 느끼고 더불어 재능 기부를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서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하는 서구청소년어울림마당 등 지역사회와 연계된 외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중심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지역화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김영은 교장은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에 활력을 느끼고 더불어 재능 기부를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서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하는 서구청소년어울림마당 등 지역사회와 연계된 외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중심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지역화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인천해원중학교는 비전을 가지고 학과차게 교육하는 희망찬 학교를 지향하는 명문중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해 꿈을 향한 열정을 계속되고 있다.

인용섭 기자 as@

다양한 진로의 길 미리 보다

인천은지초, 직업체험의 날 행사

인천은지초등학교(교장 김선봉)는 11월 17일 제3회 직업체험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피자와사, 배드민턴, 컴퓨터 프로그램, 풍선아트, 태권도 등 17개 체험 교실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 교실은 학부모와 지역사회 교육 기부자 20명과 각 부서마다 활동을 보조할 학부모 서포터즈 20명의 도움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학부모 전문가는 물론 비디오투화, 제빵, 놀이치료사, 축구 코치 심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문 강사들의 교육 기부를 통해 학생들이 평소 경험하기 힘들었던 직업의 세계에 대한 설명과 장점에 관련된 내용

동경험과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4학년 학생은 "교과년이 돼 처음 참가하는 행사인데 직접 커리어를 만드는 직업체험을 해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커리어가 만들어지려면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말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며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직업체험의 날 행사는 꿈과 끼를 키워나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해 경험할 수 있고 전문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단순한 학교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사·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진로 경험의 폭을 넓히고, 진로를 설계해 가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가치는 의미가 크다.

인용섭 기자 as@



인천화전초,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 특강 실시

인천화전초등학교(교장 강창식)는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 특강을 실시했다.

"밀린 아로마 생활용품 만들기"라는 주제로 더 아로마스쿨 교육원 김은희 원장의 강의로 실시됐는데 11월 4일은 "완결기 비법에 도움을 주는 사이다 아로마 스킨을 만들자", 11월 15일은 "공기 정화용품을 주는 리플러 아로마 스킨을 만들자", 11월 16일은 "공기 정화용품을 주는 후로멀 아로마 디퓨저 만들기"의 내용으로 특강이 이뤄졌다.

"밀린 아로마 생활용품 만들기" 평생교육 특강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학습에 대한 정보도 서로 교류하면서, 전문 강사와 함께 직접 아로마 생활용품을 만들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강창식 교장은 "앞으로는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맞춤형 강의를 개발해 다양한 학부모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인용섭 기자 as@



앞으로 인천화전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자기개발 및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것이다.

인용섭 기자 as@

기업이 원하는 일꾼 키운다

인천하이텍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부평지사 산학협력 체결

인천하이텍고등학교(교장 김동호)는 11월 15일(화)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부평지사(지사장 이은노)와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정보 공유와 발전방안에 관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사 내 입주기업에 통한 특성생들의 맞춤형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준비 중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의 기반 조성에 관한 협력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학교에서 준비 중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대한 지사 입주기업 대상 홍보 및 참여기업 발굴 ▲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 정보 교류에 관한 협

력 ▲기타 우수인재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약속했으며 상호간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약된 모든 사항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은노 컴퓨터제과과 부장교사는 "이번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부평지사와 MOU체결은 하이텍고 학생들이 지역 내 우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지사 입주기업은 우수 인력을 확보해 학교와 지역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인천하이텍고등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도제학교 준비 및 맞춤형 인력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용섭 기자 as@

학생 맞춤형 학습종합클리닉 서비스 제공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인천참사랑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동현)은 11월 16일 서부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인천참사랑병원과 학습종합클리닉서비스 관련 업무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서부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개인에 학습지원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따라 학습 상담과 코칭을 실시해 학습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병원이치료가 필요한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병원을 내원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상담 치료를 지원하는 병의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효과적인 진단·상담·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인천참사랑병원과 업무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양동현 교육장은 "학습을 방해하는 심리·정서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을 갖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부학습종합클리닉서비스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인천참사랑병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부탁한다. 아울러, 교육기부 차원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면 고맙다"고 당부했다.

인천참사랑병원 천영은 원장은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학습을 방해하는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해 학교 생활에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병원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인천서부교육지원청과 인천참사랑병원의 업무교류 협약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시에 맞춤형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인용섭 기자 as@



청담동 도심형 플라자주택
매인도시 신원아침도시 마인

청담동의 대박!

국내 유일의 최고급 빌라단지 정중앙!
최고의 입지! 파격적 조건! 합리적 가격!
모두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유치원 입점

SAT수업 입점

매주 1회 수업

매주 2회 수업

매주 3회 수업

매주 4회 수업

매주 5회 수업

이마트

이마트

이마트

이마트

이마트

이마트

이마트

청담대표상가 신원아침도시 마인 **540-1160**

특별기고

“상지대, 지금 필요한 건 상지정신으로 도약하는 일”

상지대학교는 지난 8월과 9월, 대중제를 개최하고 예정된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재학생을 비롯한 상지대 구성원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아우러지는 축제의 장이었다. 그간 살아왔던 한화가 교정에 울려 퍼지고, 행정학원의 축제용 관망에서 서로 간의 우의를 확인하는 약자지결한 웃음이 설 없이 터져 나올 때, 대학은 정춘의 전당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축제를 마치고 학생들이 강의실로 도서관으로 되돌아갔다. 졸업 때 졸업기념으로 공부할 때는 공부할 줄 아는, 대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함이었으리라. 즐기기 위한 공간이었던 축제용 관망들은 말끔히 정리되고, 들뜬 분위기의 교정은 안정적인 평상시 모습을 되찾았다.

상지대학교는 노암 길문기 설립자께서 거역의 사재를 출연해 상지정신을 건국하신다고 삼아 1974년에 설립된 명문 사학이다. 당연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고, 교수-학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직원들도 존재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교수들은 연구와 교육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직원들 역시 주어진 자리에 자신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듯 상지대 구성원들이 묵묵히 각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은 과거 부패한 입시 이사 시절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한 뜻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정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빛바랜 불법 전막은 아직까지도 20여 년간 입시이사 시절의 비리와 부정을 예서 갖춘 채 매미라 없는 뒷문 후회를 허공에 매달고 있어 구성원들의 안개처럼 눈을 흐리게 하는

야하게 한다.

교정 한 귀퉁이의 불법 전막에서 간혹 빠져나오는 정삼화리는 구호는 대체 무슨 뜻인가. 과연 무엇이 정삼이라 무엇인가 비정삼인가. 공부할 학생이 공부하고 그들을 도와야 할 교수와 직원들이 재 지리에서 주어진 일을 수행하고 있는 데 무엇을 더 정삼화해야 할까? 후여 몇몇의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그것을 개선하려는 요구라면 적극 수용하고 더 노력해야겠지만, 우리 모두의 학교를 덮어 놓고 비정삼이라 규정하는 것은 제 자리를 지키며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대다수 구성원들을 향한 모욕임에 틀림이 없다.

상지정신의 요람인 상지대학교 교정에 을 세느니처럼 제 자리 잡은 불법 전막이발로 부정과 부패와 비정삼의 상징물임에 분명하다.

다만 조지나나 공동체라든가 안락으로 급변하는 정세에 의해서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때로는 존재의 기로에 설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성의와 노력에 따라 조직과 공동체의 위기가 극복되기도 하며, 나아가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마련되기도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건국하신 상지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상지대학의 재도약을 이끄는 일일 것이다.

이렇듯 교정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축제용 전막들을 사라졌다. 축제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불법 전막 또한 이제 상지정신에서 철거해야 한다. 상지대학의 정삼화는 이미 실현되었고 이제 상지정신에 힘입어 힘차게 도약할 일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글-최용성 상지대 교수(상지대학교 특성화기초학부장)